

중국 대학생들의 운동 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 재미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오영택 · 양명환* 제주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and sport loyalty of chinese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fun factors

Oh, Youngtaek · Yang, Myung-Hwa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un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xercise participation and sport loyalty for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2 university students from X University in Xi'an, China. They responded to the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fun factor, and sport loyalty on the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18.0 and SPSS Macro PROCESS statistical program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ealth promotion, soci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achievement. Second,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port loyalty. Third, soci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achiev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port loyalty. Fourth,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port loyalty through soci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achiev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you have fun through participating in sports, you can feel a sense of happiness such as flow and attachment to the sport.

I. 서론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여가시간 증가 및 비만과 노화 방지를 위하여 스포츠참여를 위한 여러 환경들을 조성한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정도, 스포츠 활동 참여 성향을 의미하는 스포츠 애호도는 타 활동보다 우선시하여 스포츠 활동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구봉진, 남정훈, 2011; Backman & Crompton, 1991). 양명환(2000)은 스포츠 애호도를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및 정서적 활동을 유발하며, 유발된 인지 및 정서적 활동이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애호도는 인간의 행복감을 유발시키는 선행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체육학 분야에서의 스포츠 애호도는 심리적 웰빙(구봉진 등, 2011; 남정훈, 2010), 여가활동 전문화, 사회·심리적 건강(서진교, 고영준, 201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애호도는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종속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애호도를 인지하기 위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동 참여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Godin, & Shephard(1997)가 제작한 GLTEQ(Godin Leisure-Time Exercise Questionnaire)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운동 참여자들에게 일주일동안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고강도 횡수×9, 중강도 횡수×5, 저강도 횡수×3으로 곱한 후 총점수를 합산하여 운동 참여수준 변인을 추출하였다(오영택, Wang, Yanwei, 양명환, 2021 재인용). 여러 연구자들은 신체활동 즉, 운동참여는 불안, 우울증상 등 부정적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Berger, Pargman & Weinberg, 2002; Landers &

Argent, 2001). 국내의 연구에서도 운동참여는 신체만족도(박순희, 2018), 몰입경험(김성문, 유정인, 201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에게는 학업 스트레스(김지영, 김은지, 김정섭, 2018), 졸업 후 진로 및 취업(고은숙, 이호준, 2021; 조혜영, 2015)등에 대한 고민으로 운동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운동 참여를 위해서는 재미요인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미요인은 스포츠 전령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서 즐거움, 좋아함, 재미와 같은 일반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스포츠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Scanlan & Simons, 1992)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김형룡(2004)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재미요인이 중요한 감정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박성천(2009)은 스포츠 활동 참여태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즉, 스포츠 참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반면에,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경우 스포츠 활동에 중도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김지수, 2016; Gould & Petlichkoff, 1998). 특히, 재미요인은 건강도모,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으로 3차원적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김가람, 2017 재인용).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김지수, 2016), 여가열의(이혜희, 김영재, 2015), 수업만족도(오병돈, 2014), 심리적 웰빙(오영택 등, 202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신체활동 참여 수준에 따라서 스포츠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인 스포츠 애호도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신체활동에 재미를 느낄 경우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것이다. 이때, 재미요인인 3개의 하위요인 중 건강도모(지속적인 신체활동, 금주 및 금연, 식단 조절), 사회성 함양(타인들과의 관계, 인격존중 책임감), 성취감 경험(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및 목표 달성) 중 어떠한 변인에 의해서 간접효과를 유발하는

지 PROCESS Macro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중국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 10월~12월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교 대학생 21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22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212부의 자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학생 123명(58%), 여학생 89명(42%)으로 총 2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운동 참여수준

운동 참여수준은 Godin, & Shephard(1997)가 제작한 Godin Leisure-Time Exercise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오영택, 왕염위, 양명환(2021)이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지의 지시 문항은 격렬한 고강도 운동(예;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뛸 정도), 적당한 중강도 운동(예; 땀이 흐르기 시작하지만 탈진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약한 저강도 운동(힘이 들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주당 횟수()란에 운동에 참여한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총 운동

참여 시간 측정은 고강도에 9점, 중강도에 5점, 저강도에 3점을 곱하여 주당 운동참여시간 점수=(9×고강도)+(5×중강도)+(3×저강도)로 계산하였다(오영택, Wang, Yanwei, 양명환, 2021 재인용).

2) 재미요인

재미요인 척도는 '체육수업 재미거리 질문지 PCESQ (Physical Education Class Enjoyment Questionnaire)를 김가람(2017)이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오영택, Wang, Yanwei, 양명환(2021)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지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건강도모,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치가 낮은 4문항을 삭제하고 8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8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imate $\chi^2=1290.507$, $df=28$, $p<.001$).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건강도모 .75, 사회성 함양 .88, 성취감 경험 .94로 나타났다.

3) 스포츠 애호도

스포츠 애호도는 양명환(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 애착을 측정하는 것으로 10문항 1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구조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imate $\chi^2=2170.892$, $df=45$, $p<.001$).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척도는 한국에서 체육학 전공교수 1인, 스포츠심리학 박사 2인, 한국어와 중국어 2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박사과정 유학생 3인이 중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및 번역절차를 거친 후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학생들에게 온라인 프로그램인 WeChat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와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12월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WeCh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진행의 동의서 작성 및 설문지를 작성하는 도중 설문문을 포기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과 SPSS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구성 개념의 타당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운동 참여수준, 재미요인, 스포츠 애호도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Hayes (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운동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표 1>.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2와 7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변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변인들 간의 적절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다중 공선성의 조건인 .8이상의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측정변인	A	B	C	D	E
운동참여수준(A)	1.00				
건강도모(B)	.264**	1.00			
사회성 함양(C)	.222**	.647**	1.00		
성취감 경험(D)	.256**	.697**	.725**	1.00	
애호도(E)	.299**	.557**	.624**	.617**	1.00
M±SD	5.75±3.61	3.96±.69	3.73±.74	3.94±.71	3.69±.75
왜도	1.567	-.386	-.052	-.381	-.081
첨도	1.921	.772	.640	.577	.091

2. 운동 참여수준, 재미요인 및 스포츠 애호도 간의 경로분석

운동 참여수준, 재미요인 및 스포츠 애호도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운동 참여수준이 재미요인의 하위요인인 건강도모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1, SE=.013, t=3.9663, p<.001). 사회성 함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45, SE=.014, t=3.3008, p<.01), 성취감 경험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9, SE=.013, t=3.8307, p<.00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운동 참여수준은 스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9, SE=.011, t=2.6526, p<.01). 다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건강도모는 스포츠 애호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쳤으나,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079, SE=.097, t=.8182, p>.05). 사

회성 함양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339, SE=.097, t=3.5165, p<.001), 성취감 경험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63, SE=.112, t=2.3543, p<.01).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인 재미요인을 경유했을 때 운동 참여수준이 스포츠 애호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2, SE=.014, t=4.548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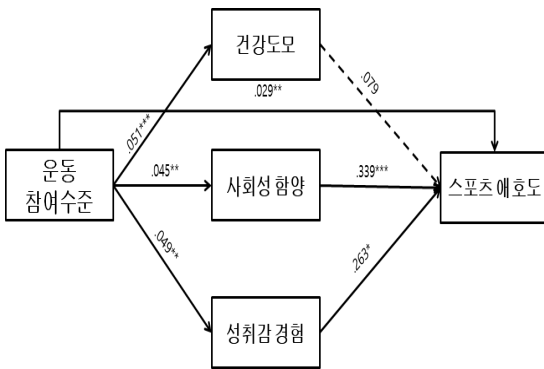


그림 1. 운동 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

3. 운동 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재미요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2>와 같다. 운동 참여수준이 건강도모를 경유하여 스포츠 애호도에 미치는 총 간

접효과는 .004이며 95%편의교정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0068~.0159)이 0을 포함함에 따라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사회성 함양 .015(.0053~.0293), 성취감 경험 .013(.0031~.0272)으로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사람들은 특정 활동에 참여 후 성취감, 만족감을 느낄 경우 재참여 의사를 경험한다. 이때,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변인 중 재미요인을 경험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재미요인은 강한 동기부여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즐거움, 행복감 및 흥미 등의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Scanlan & Simon, 1992). 스포츠 환경에서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수준에 따라서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경로분석으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운동 참여수준은 스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예주, 최수영, 백운효(201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338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 참여수준 중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시간 미만과

표 2. 운동 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총 효과 Coeff(SE) t	직접효과 Coeff(SE) t	총 간접효과 Effect(SE) (LL~UL) †	총 간접효과		
					건강도모 Effect(SE) (LL~UL)	사회성 함양 Effect(SE) (LL~UL)	성취감 경험 Effect(SE) (LL~UL)
운동 참여수준	스포츠 애호도	.062(.014) 4.5489***	.029(.011) 2.6526**	.036(.011) (.0145~.0159)	.004(.01) (-.0068~.0159)	.015(.01) (.0053~.0293)	.013(.01) (.0031~.0272)

† LL~UL: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Low Limit~Upper Limit)편의교정 95%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을 의미함.

24시간 운동참여가 학습특성, 심리특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지훈(2011)의 연구에서 서울지역 '헬스교실'에 참여하는 성인 3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 참여수준인 운동기간, 빈도에 의해서 우울,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변인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운동 참여수준인 운동 강도에 따라 스포츠에 시간 투자 및 애착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수아, 양명환(2019)의 연구에서 피트니스센터 회원 2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참여수준이 높음, 중간, 낮은 수준 중 높음, 중간 수준으로 운동에 참여할 때 신체불만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참여수준에 따른 다양한 연구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어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재미요인인 건강도모,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혜, 안현숙(2018)의 연구에서 교양체육 강의를 수강하는 경기지역 대학생 2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행동적 수준(참여빈도, 참여강도)은 재미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인지적 수준(운동 자각수준, 운동행동 변화 단계)은 재미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영택 등(2021)의 연구에서 중국 길림성 지역 대학생 4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참여수준은 재미요인인 건강도모,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재미요인을 느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재미요인은 함께 참여하는 동료, 파트너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함께 참여하는 동료들 간의 새로운 기록, 목표, 승리를 거둘 때 이들은 더 큰 행복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재미요인 중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에서 스

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수(2016)의 연구에서 테니스 동호인 28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미요인은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선우, 한혜원(2016)의 연구에서 생활무용학원 수강생 2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미요인이 지속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수택, 정철규(2016)의 연구에서 골프대회 관람객 36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미요인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에 직접 참여가 아닌, 간접 참여를 통해서도 재미요인을 경험하고서 여가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낄 때 참여활동에 대한 애착, 만족,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건강도모를 제외한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에서 스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영택 등(2021)의 연구에서 중국 대학생 4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 참여수준은 재미요인인 사회성 함양과 성취감 경험을 경유하여 심리적 웰빙인 유능감, 자아실현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대학생들은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감정 중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료, 친구 등 참여자들 간의 인과관계, 신체활동에 참여 후 느끼는 성취감, 만족감에 의해서 스포츠 애호도를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도 중국유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방과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한국 대학생들과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국내 대학 학생들

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각 국의 대학생들의 문화 및 스포츠가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운동참여수준을 총합점수 보다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따른 재미요인,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운동 참여수준과 스포츠 애호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재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21년 중국 시안성에 소재한 X대학 대학생 212명이었다. 이들은 운동 참여수준, 재미요인, 스포츠 애호도 측정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 SPSS Macro PROCE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추출하였다. 첫째, 운동 참여수준은 매개변인인 건강도도,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운동 참여수준은 스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재미요인 중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은 스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운동 참여수준은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을 경유하여 스포츠 애호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쳤다.

참고문헌

강수택, 정철규(2016).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 관람객들의 경기관람결정요인이 재미요인 및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2), 219-233.

강지훈(2011). 운동참여수준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645-652.

고은숙, 이호준(2021). 대학생의 진로 미결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90년대 생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67-98.

구봉진, 남정훈(2011). 배드민턴 동호인의 스포츠 애호도와 정서 및 심리적 웰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2), 917-924.

김가람(2017). 복싱클럽 참여 학생들의 재미요인이 몰입과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김성문, 유정인(2013). 운동참여수준과 선호유형에 따른 감각추구성향과 몰입경험 차이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2(1), 423-434.

김은혜, 안현숙(2018). 대학생의 교양체육 참여수준에 따른 재미요인과 내적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리듬운동학회지**, 11(2), 37-49.

김지수(2016). 스포츠 재미요인과 여가만족 및 운동 지속의 관계: 홀리스틱 교육의 관점에서. **홀리스틱교육연구**, 20(4), 97-115.

김지영, 김은지, 김정섭(2018).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고개발**, 41(1), 53-73.

김형룡(2004). 레저스포츠 참가동기 및 제약과 재미(Fun)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남정훈(2010). 자전거활동 참가자의 스포츠 애호도, 운동정서 및 심리적 웰빙의 구조적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4), 167-182.

박선우, 한혜원(2016). 생활무용 교육유형이 재미요인과 지속적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3(1), 11-22.

박성천(2009). 대학 스포츠 동아리 참여와 재미요인 및 신체적 자기개념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박수아, 양명환(2019). 대중매체의 압력, 신체이미지 및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 운동참여수준의 조절효과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21(2), 33-44.

박순희(2018). 모델전공 여대생들의 운동 참여정도가 신체만족도 및 폭식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

- 리듬운동학회지, 11(1), 71-80.
- 서진교, 고영준(2013). 성인 태권도동호인의 스포츠 애호도와 여가활동 전문화 및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계. **한국운동재활학회**, 9(1), 135-143.
- 양명환(1998). 여가 스포츠의 활동 애호도와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 국제스포츠 과학 학술대회**, 433-444.
- 양명환(2000). 교사들의 스포츠 활동 애호도가 심리적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4(2), 182-200.
- 오병돈(2014). 교대생의 체육수업 재미요인과 수업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19(2), 93-104.
- 오영택, Wang, Yanwei, 양명환(2021). 중국 대학생들의 운동 참여수준, 재미요인 및 심리적 웰빙 간의 인과관계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23(4), 59-67.
- 오영택, 왕염위, 양명환(2021).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스포츠 가치 의식 비교 분석. **코칭능력개발지**, 23(3), 119-130.
- 이혜희, 김영재(2015). 덴스스포츠의 재미요인이 여가 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1), 401-412.
- 조혜영(2015).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능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연구**, 5(4), 29-56.
- 홍예주, 최수영, 백운효(2017). 운동참여정도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폭력변인과 심리특성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6(2), 639-647.
- Backman, S. J., & Crompton, J. L.(1991). Differentiating high, spurious, latent, and low loyalty participants in two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9, 1-12.
- Berger, B. G., Pargman, D., & Weinberg, R. S. (2002). *Foundations of Exercise Psychology*. Morgantown, WV: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Inc.*
- Godin, G., Shephard, R. J. (1997) Godin Leisure-Time Exercise Questionnaire.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26(6), 36-38.
- Gould, D. & Petlichkoff, L. (1998).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ttrition in young athletes. In F. L. Smoll, R. A. McGill, & M. J. Ash (Eds.), *Children in sport(3rd ed.)*, pp. 161-178.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ayes, A. F. (2013). Model templates for PROCESS for SPSS and SAS. Retrieved December, 12.
- Landers, D. M., & Arent, S. M.(2001). Physical activity and mental health, In R. N. Singer, H. A. Hausenblas, & C. M. Janelle(Eds.), *Handbook of research on sport psychology* (2nd ed., pp. 740-765). New York: Wiley.
- Scanlan, T. K., & Simons, J. P. (1992). The construct of sport enjoyment. In G. C.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9-215.

접수일 : 2022. 02. 10

게재확정일 : 2022. 02. 23